

배포일시	2014. 7. 23.(수) 10:00 (총8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담당자	과장 정현숙 사무관 김정선
		전화번호	02-2181-0407

3개월 전망 (2014년 8~10월)
**전반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후반에는 주기적인 날씨 변화를 보이겠음**

【 3개월(8~10월) 전망 요약 】

기간 \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C)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8월	25.1	20	45	35	274.9	35	50	15
9월	20.5	30	50	20	162.8	45	30	25
10월	14.3	30	45	25	50.2	30	45	25

1. 날씨 전망

-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9월)**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0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이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 전망)**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최근 평년보다 다소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여름철 동안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 ※ 최근 해수면온도 편차 : 6월 +0.6°C, 7월 13~19일 +0.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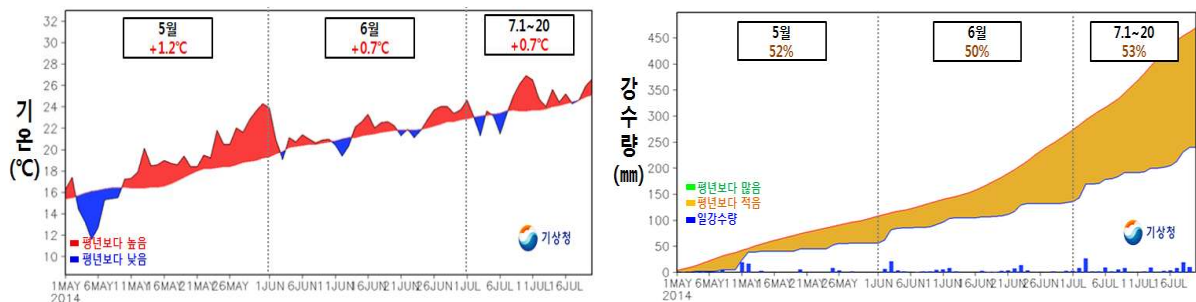
- ※ 엘니뇨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C 이상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봄.

2. 최근 날씨 동향

- **(5월)**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았으며, 동아시아 지역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음. 중순과 하순에는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4일에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충청도, 전라도에 비가 내렸으며, 8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음. 11~12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으며, 14일과 20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음. 25~26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지방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18.4°C로 평년(17.2°C)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2°C), 강수량은 56.2mm로 평년(101.7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2%).
- **(6월)** 상순 후반부터 중순 전반에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성 강수가 잦았으며,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였음.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중순 후반에 일시적으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음. 2~4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5일에는 일본 남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음. 17일에는 일시적으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렸음. 21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렸으며, 중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비가 내렸음. 22~24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기가 불안정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렸으며, 28일과 30일에도 강원도와 내륙지방에 소나기가 내렸음. 기온은 21.9°C로 평년(21.2°C)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0.7°C), 강수량은 77.6mm로 평년(158.6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0%).

○ (7월 1~20일) 장마전선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며, 9~11일에는 태풍의 전면에서 남쪽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사까지 더해져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2일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3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렸음. 6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9일에는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12~13일, 15~17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18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기북부와 영서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음. 19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서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24.5°C로 평년(23.8°C)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0.7°C), 강수량은 106.0mm로 평년(204.3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3%).

○ (최근 3개월, 2014.5.1~2014.7.20) 평균기온은 21.2°C로 평년(20.3°C)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0.9°C), 강수량은 239.8mm로 평년(469.0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0%).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4.5.1~2014.7.20)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8~10월)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8~10월)

【 알 림 】

- 1,3개월 전망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4년 8월 22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장기예보는 특정 지역의 기후에 관하여 3개월 이내의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에 대해 평균된 날씨 경향을 예보하며, 단기예보에 비해 정확도가 낮으나 정보 제공을 위해 발표됩니다.

※ 월별 평균기온과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전국 평균(제주도, 북한제외)]

기간 요소	8월		9월		10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균기온	25.1°C	-0.5 ~ 0.5°C	20.5°C	-0.4 ~ 0.4°C	14.3°C	-0.4 ~ 0.4°C
강수량	274.9mm	82 ~ 118%	162.8mm	72 ~ 128%	50.2mm	68 ~ 132%

※ 확률예보 해석 기준

확률예보 값			해석
평년보다 낮음(적음)	평년과 비슷	평년보다 높음(많음)	
10	30	60	평년보다 높음(많음)
20	30	50	
20	35	45	평년보다 높거나(많거나) 비슷
25	35	40	
25	40	35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30	30	40	평년과 비슷
30	40	30	
25	50	25	
40	30	30	
35	40	25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40	35	25	평년보다 낮거나(적거나) 비슷
45	35	20	
50	30	20	평년보다 낮음(적음)
60	30	10	

- 3분위 중 어느 하나가 50% 이상이면, 하나로 발표
- 3분위 중 50% 이상이 없으면, 35% 이상인 것을 모두 발표
(단, 하위 2개가 동률일 경우(40:30:30)에는 '평년과 비슷'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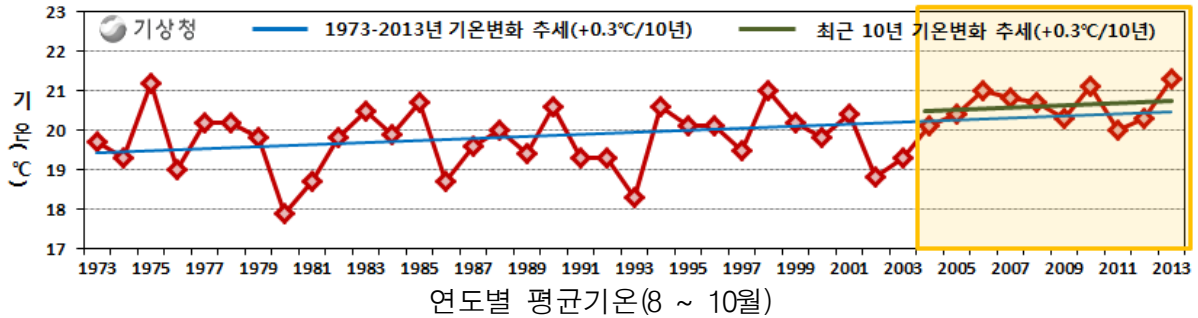
[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8 ~ 10월)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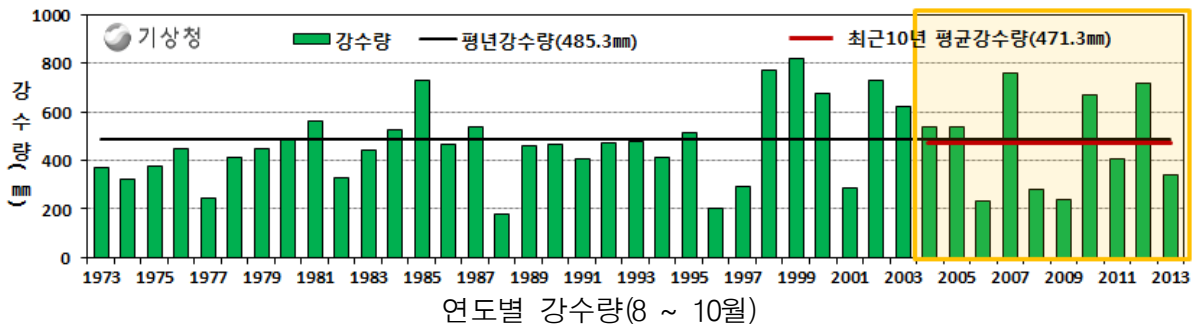
- 최근 10년(2004~2013) 평균기온은 20.6°C로 평년(20.0°C)보다 0.6°C 높았음.

※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추이(°C/10년) : +0.3(8월 +1.5, 9월 +0.1, 10월 -0.4)



○ 강수량

-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은 471.3mm로 평년(485.3mm)대비 97%를 기록하였음.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8월	9월	10월
평균기온(평년편차)	°C	25.8 (+0.7)	21.0 (+0.5)	15.0 (+0.7)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C	30.3 / 22.3	26.2 / 17.0	21.4 / 9.7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264.4 / 14.1	165.7 / 10.7	41.1 / 5.2
일조시간	시간	167.4	160.1	205.5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	7.2	0.4	0.0
열대야 일수(밤최저기온 25°C 이상)	일	4.7	0.1	0.0
일강수량 80mm 이상 일수	일	0.6	0.4	0.0
일교차 10°C 이상 일수	일	8.3	12.9	20.6

* 기온·강수량은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지점 평균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 고온현상

- (2013년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나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2, 평균 최고기온 +2.5). 가축이 폐사하고, 천여 명의 온열질환자 중 14명이 사망하였음.
- (2012년 8월 1~20일)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1.7[1위 2013년 +2.6]). 7명이 사망하고, 수백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음.
- (2011년 9월 12~17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온난 습윤한 공기유입과 낮의 강한 일사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음(9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C) : 15일 대구 34.2, 16일 고흥 34.1, 장흥 33.7, 울산 32.9 등, 17일 완도 33.0, 천안 32.5 등). 15일에는 전력수급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순환정전이 실시되어, 정전으로 공장 가동 중단, 승강기 관련 사고와 교통대란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9월 20일)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0, 평균 최저기온 +2.6).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해수욕장 및 여름상품의 매출은 호황을 이루었음.
- (2008년 9월 7~24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5, 평균 최고기온 +3.0).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났으며, 쌀, 배 등 아열대성 작물은 유례 없는 풍작이었으나, 농작물 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5, 평균 최고기온 +2.8, 평균 최저기온 +2.6). 특히, 10월 10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고온이 나타나 10월 최고기온 극값(동해 29.7°C, 속초 29.3°C 등)을 경신하였음. 높은 기온 탓에 가을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음.

○ 저온현상

- (2006년 9월 5~18일)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쌀쌀한 날이 지속되어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 2.9[1위 2000년 - 3.5]).

○ 많은 비

- (2012년 8월 12~16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일강수량(mm) : 13일 군산 251.8, 부안 144.0, 금산 137.5, 15일 강화 235.0, 문산 226.0, 철원 174.5, 청주 165.5 등)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28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21일) 대륙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9월 극값 2위] : 서울 259.5(1시간 최다 강수량 75.0), 원주 209.0). 추석연휴 첫날이었던 이날, 광화문을 포함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2명이 사망하였으며, 1만 4천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121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 13~18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음(누적강수량(mm) : 장수 485.5, 임실 419.1, 정읍 346.5, 전주 319.5 등). 1명이 사망하고, 하천·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었으며, 85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23일)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크게 발달하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일강수량(mm)[10월 극값 1위] : 강릉 304.0, 속초 232.0, 최대순간풍속(m/s) [전체년도 극값 1위] : 속초 63.7)가 내렸음. 1명이 사망하고, 주택 침수, 도로·교량 유실 등 69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태풍

- (2013년 10월 8일)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제주도와 경상도지방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포항 115.5, 울진 102.5, 울산 91.4 등). 1998년 이후 처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으로 경상도 동해안 인근 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2년 8~9월) 제15호 태풍 '블라벤'(8월 28일)과 제14호 태풍 '텐빈'(8월 30일)의 연이은 상륙과 제16호 태풍 '산바'(9월 17일)의 상륙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최대순간풍속(m/s) : 8월 28일[8월 극값 1위] 완도 51.8, 군산 39.7, 수원 28.2, 9월 17일 통영 39.4, 여수 38.8, 고산 35.8 / 누적강수량(mm) : 8월 27~30일 제주 357.7, 목포 283.9, 정읍 277.2, 9월 15~17일 제주 405.2, 산청 304.5, 포항 264.0 등). 7명이 사망하고, 1조 1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8월 6~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전남 해안 지역에 강풍으로 인해 방파제·선착장 등 어항시설에 피해가 컸으며,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8월 극값 1위] : 9일 정읍 420.0, 임실 234.0, 7일 제주 299.0 등). 1명이 사망하고, 주택침수 등 2천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1~2일) 제7호 태풍 '곶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여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음(2일 최대순간풍속(m/s)[전체년도 극값 1위] : 서산 41.4, 수원 30.5, 홍천 20.7). 서울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기 공급이 끊겨 지하철이 중단되어 출근대란이 발생하였음. 6명이 사망하고, 167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7년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가 남해안에 상륙하여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으며(일강수량(mm) : 제주 420.0 [전체년도 극값 1위], 서귀포 265.5[9월 극값 1위], 고흥 239.0, 산청 140.0), 16명이 사망하고, 47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9월 16~18일) 제13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풍(최대순간풍속(m/s) : 17일 여수 36.0, 부산 32.5, 18일 울릉도 45.6, 울진 35.8 등)과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소규모 방파제와 수산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10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5년 9월 6일) 동해 남부를 북동진하여 통과한 제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울산 327.5 [9월 극값 1위], 포항 265.0[9월 극값 2위], 강릉 215.0, 울진 185.5[9월 극값 1위] 등). 6명이 사망하고, 1천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7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